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ly 11, 2019 Vol. 679

3만원에 항문 포기하는 청소년들, 에이즈 2500% 증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지난 10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전문의 염안섭 원장(현 한국 수동연세요양원)을 초청해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예방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인도한 염안섭 원장은 동성애와 에이즈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 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가 동성애의 원인과 실상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는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며 학습으로 되는 것”이라며 “동성애는 포르노 시청이나 성인 동성애자들의 성폭행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동성애 포르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동성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몸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성애’라고 지적한 염 원장은 “한국의 남자 청소년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1시간에 약 3만 원가량



염안섭 원장 초청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 대상 ‘동성애 예방 교육 세미나’에 참석자 단체 사진

의 적은 돈 때문에 자신의 항문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에이즈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2500% 증가했다”고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밝혔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단언한 염 원장은 “특히나 남자 간 동성애

는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관계를 갖는 수간 및 아동 성폭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체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애자 등 비정상적인 성 중독으로 번지게 돼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성애자 중에는 1천 명 이상과 성관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동성 간 성 중독”이

라고 남성 동성애의 실체를 밝혔다.

염 원장은 이어 정부의 친 동성애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1만 명, 관리를 못하는 에이즈 환자가 3만 명인데, 이들은 에이즈 검사 비용에서부터 치료비와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심지어 교통비와 식비,

노후보장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받으며 귀족 집단화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사는 “동성애 현장에서 실상을 직접 경험한 염안섭 원장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동성애 문제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성시화운동본부가 한국을 비롯한 미주 전 지역에 동성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는 “악한 세력들의 무리는 보이지 않게 무장해서 우리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교계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교육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며 “믿는 우리를 비롯해 이 나라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최병호 총회장 “NCKPC를 한인대회로 승격” 구체적 이정표 제시

PCUSA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NCKPC 최병호 총회장이 한인교회가 속하는 한미노회를 미주 전역에 총 5개로 구성하는 것과 NCKPC를 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총회장은 7월 들어 발표한 서신을 통해 “한인교회 코커스인 NCKPC는 권익옹호단체에서 행정기관인 한인대회로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취임 당시 NCKPC의 구원선 역할

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던 최병호 총회장은 실질적으로 한인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처음 제시한 것이다.

최병호 총회장은 “앞으로 한인교회 코커스가 해야 할 일은 친교 단체인 KPC와 NCKPC를 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일”이라면서 “행정기관인 한미노회를 중심으로 NCKPC를 한인대회로 승격시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복음적인 한미노회와 한인대회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시기는 일과 관련, “그러면 KPC는 친교 공동체에서 탈피하여 사법권, 재산권, 안수권을 가진 한미노회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NCKPC의 한인대회 승격에 대해서는 “한미노회를 5개로 확장해서 5개의 한미노회를 중심으로 NCKPC를 한인대회로 승격시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복음적인 한미노회와 한인대회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PCUSA 교단의 중심에 들어가 엄청

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병호 총회장은 “신학적, 세속적으로 훈련되는 PCUSA에 한인교회의 뜨거운 신앙과 복음적인 열정으로 PCUSA와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면서 “NCKPC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전진해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대원 기자



NCKPC 총회장 최병호 목사

고수익,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Academic Year 2019-2020

ANC 온누리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2019년 8월 24일(토) 까지

지원자격 2019-20년도 대학 혹은 대학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 (석/박사 과정 포함)

장학금 일반장학금 - \$1,500 ~ \$2,000/1인당

MK/PK/신학생 특별장학금 - \$2,000/1인당

특별장학금 - \$2,000/1인당

지원방법 www.ancsf.us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결과발표 2019년 10월 13일 ~ 10월 15일 (email로 개별 통지)

장학금 수여 2019년 11월 3일(주일) 5:00pm / ANC 온누리 교회

자세한 내용은 ANC 장학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ancsfug@gmail.com)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Being One With Christ, Bearing Abundant Fruit

(요/John 15:5)



A N C S C H O L A R S H I P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 김태형)

WWW.ANCONNURI.C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인 제니퍼 뉴섬과 함께하는 오찬에 한인 교회 사모님을 초대합니다”



좌부터 '가주 주지사 부인 제니퍼 시에벨 뉴섬 초청 오찬' 일정을 소개하는 FACE 선교회 이사 샘신 목사, 임혜빈 회장, 이사장 박종대 목사, 정동익 회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 제니퍼 뉴섬(Jennifer Newsom) 여사가 한인 목회자 사모들을 만나 특별 오찬을 함께 한다.

오는 24일(수)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벨라스코 극장 (BELASCO THEATER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에서 진행되는 이번 오찬 행사는 지난 주지사 취임식에 초대받은 FACE 선교회(대표 임혜빈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가 한인 목회자 사모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뉴섬 여사가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100여 명의 사모들을 초청하는 이번 오찬에서 뉴섬 여사는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사모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추천을 통해 3명의 사모에게 “자랑스러운 사모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임혜빈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하신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취임식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인인 제니퍼 뉴섬 여사에게 오찬을 제의했고, 뉴섬 여사가 얼마 전 오찬 제의를 수락하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사모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날인

만큼, 수고하신 사모님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FACE 선교회 이사 샘신 목사는 “정치적인 동기가 전혀 없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온 사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번 행사가 준비됐다”며 “많은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관심과 후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이메일 (info@facela.org)로 신청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사모상 추천은 10일(수)까지 FACE 홈페이지(www.facela.org)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LA 챔버 콘서트 2019 여름 콘서트 여성 탈북자 돋기 자선 음악회로 진행



LA 챔버 콘서트 실황

로스앤젤레스 챔버 콘서트(Los Angeles Chamber Choir)의 2019년 여름 콘서트가 오는 14일(주일) 오후 7시, 애너하임에 소재한 세인트 토마스 한인 성당(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날 콘서트 수익금은 UCT-KCCC 그날까지 선교연합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탈북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의 티켓은 20달러다.

문의 : 626-825-7686

설교가 바뀌면 예배에 은혜가 넘친다!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가든스위트 호텔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아카데미(Kairos Ministry Academy)가 주최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본지가 후원하는 제1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오는 7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든스위트 호텔(Garden Suite Hotel)에서 열린다.

원포인트 강해설교란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로,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설교다.

강사로 나서는 신성우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의 이론과 실제, 인문고전과 설교,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 작성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신성우 교수는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을 공부하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신학석사(Th.M.),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석사를 공부했으며 남아공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성우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실천신학)

한편 신성우 교수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석사학위(Th.M.)를, 남아공에서 수사학적 설교(Univeristy of Pretoria)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생명의말씀사)》, 《다빈치 코드가 뭐길래?(생명의말씀사)》, 《성경 먹는 기술(규장)》,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생명의 말씀사)》 등이 있다.

문의: 818-200-3807

주소: 681 S. Western Ave, LA, CA 90005

요한계시록 바로 알고 읽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임경현 목사)는 오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요한계시록 연구소 대표 이필찬 교수

“우리는 예수 바보에요...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인터뷰]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

지난 5일, 방송 선교에 협력하는 교회들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남가주를 방문한 CGNTV 제4대 대표 이용경 장로를 만나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해 들어봤다.

1943년에 출생한 이용경 장로는 경기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24세의 나이로 도미한 이용경 장로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석사, UC버클리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 대학 조교수, AT&T Bell 연구소 책임연구원, 엑손 책임 연구원,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 KT 대표이사 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를 설명하는 이력은 화려하다. 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던 학자였으며,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영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이력에 앞서 미주 한인 이민교회에서부터 성실히 교회를 섬겨온 장로였고, 주일학교 교장 직분을 소중함으로 감당했던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남가주에는 어떤 계기로 방문하셨습니까?

“북미주를 비롯해 전 세계에 CGNTV 방송 선교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찾아가 CGNTV의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자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CGNTV에 협력해주시는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두 아들 가족과 만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기정에서 성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으시고 제가 2대째 신앙입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께서는 의사가 되려고 세브란스 의대에 몇 번이나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져 무작정 학교를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때 김명선 박사가 예수 안 믿어서 떨어졌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바로 교회를 찾아갔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의대에 합격하신 아버지께서는 의사가 되셨고 더 중요하게는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섬기시며 안양제일교회의 부지를 기증하고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크리스천 리더는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CGNTV 4대 사장 이용경 장로. ©김동욱 기자

받으시진 않았지만 믿음의 고상한 지혜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말씀하시며, 투박하셨지만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81년을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말씀과 삶으로 신앙의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성을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뭘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감사한 것이거든요.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와 기업, 사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

리는 예수 바보’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 진리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직책을 맡은 자리에서 부정과 탐욕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경영자로서 닳고 싶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통해 회사가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크리스천 리더는 무엇보다 사람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당신이 없을 때까지도 염두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성찬의 의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대표가 매일 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래로부터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 만난 것은 제가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목사

님에 대한 기억이 아주 강렬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저희 작은 아들이 온누리교회 영어부 예배에 나가면서 저희 가족도 온누리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 목사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온누리교회가 위성을 쏘아 올리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 방송 비전을 구체화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2000년부터 온누리TV라는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해외에서는 베파팅 때문에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선교 방송을 위한 통신망이 필요했고, 마침 제가 KT 대표로 있을 당시 여기서 그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의 비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위성망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꿈도 꾸

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꿈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형성해 CGNTV가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선교 방송이 됐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이지요.”

-CGNTV 4대 사장으로 지난 3년 동안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2017년 저희가 CGNTV가 제작한 영화 서서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 독일계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의 출생과 사역 내용을 담으면서 그녀의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선교사 일대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화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상영이 됐는데 서서평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을 영화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CGNTV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는 SNS를 기반으로 영상 시청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발하고 신선한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요.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방송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작 하지만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고 친밀한 코드로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초 방영된 CGNTV의 두 번째 드라마 작품인 ‘고고송’은 비기독교인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능력을 전하는 작품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위한 방송이지만 선교 목적을 가지고 차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CGNTV는 광고 없이 기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위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다고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서 매년 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CGNTV의 사역을 더욱 알리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도 대표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동욱 기자

팔지 1개 -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합니다.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투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투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택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투찌에의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찬양집회

2019. 7. 17(수) 오후 7:30
LA 예운 교회 곽건섭 목사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2019. 7. 19(금) 오후 7:00
LA 평화 교회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 CA 90006

얼바인 온누리교회, 특별 성령집회 개최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얼바인 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는 오는 10일(수)부터 4주간 특별 수요 성령집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이번 성령집회는 남가주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청해 강단을 교류하는 연합집회라 눈길을 끈다.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수요성령집회는 심혈진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해 말씀과 기도시간으로 이뤄진다. 4주간 패션(PASS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특별 수요성령집회' 강사로는 7월 10일 신동수 목사(로고스교회 담임), 7

김동욱 기자

미주 평안교회 VBS 60명 아이들 위해 20명 교사가 헌신



미주평안교회 2019년 VBS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9까지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교회는 3일 동안 세속화 되는 세상에서 차세대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미주평안교회는 여름성경학교에 등록한 60여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20여 명의 교사들을 세울 만큼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PTA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위해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애썼다.

한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미주평안교회는 차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ly@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왕자가 전하는 행복의 비밀

아일랜드가 낳은 천재적인 작가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는 시인으로, 극작가로 또 소설가로 걸출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는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작가였고 문학과 인생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세계는 폭이 넓습니다. 희곡 '살로메' 같은 발칙한 작품도 있지만 '행복한 왕자(Happy Prince)' 같은 따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설 '행복한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발표한 "행복한 왕자와 다른 이야기들(The Happy Prince and Other Tales)"이라는 단편집의 대표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난한 도시 중앙에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화려했습니다. 몸은 금으로 입혔고, 두 눈동자는 사파이어, 허리에 칼 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남쪽나리를 향해 가던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왕자의 발 사이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남쪽으로 떠났지만 실연의 아픔 때문에 아직도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지난여름부터 갈대와 사랑에 빠졌었는데 말없는 갈대 청년에 실망하고 남쪽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상 밖아래 머무르는 제비 머리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그것들이 왕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임을 발견합니다. 제비가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라고 묻습니다. 왕자는 "내가 궁전에서 살 때는 눈물을 몰랐는데 내가 죽어, 이곳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에서 세상을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서있으니, 그들을 도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왕자는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어 가난한 엄마와 병든 아들의 집에 갖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갈 길이 바빴지만, 왕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또 눈동자에 박혀 있는 사파이어를 가난한 예술가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합니다. 돌아온 제비에게 왕자는 또 다시 자신의 다른 눈동자를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주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제비는 왕자의 몸에 입혀진 금을 벗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느덧 거리에는 눈이 내렸지만 제비는 왕자를 훌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력을 다한 제비는 주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왕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왕자의 발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몸에서 도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흉물이 되어버린 왕자의 동상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깨진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늘

나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진 '행복한 왕자'는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참된 행복임을 말해줍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었던 왕자와 제비의 삶에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불쌍한 시민들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울과 비애, 동정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울러 왕자의 선한 마음을 도와 자신을 버리는 제비의 헌신적 사랑에도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의 헌신적 사랑과 그 안에 담긴 행복과 대조되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얼어 죽은 제비의 시체나 금과 보석이 벗겨진 왕자 동상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도시를 더럽히는 흉물로 인정하고 철거하고 내다 버립니다. 이것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 나눔, 그리고 섬김을 사랑하고 칭찬하다가도 자신들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당장 쓰레기 취급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사람들의 여론과 기호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허망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진정한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참된 행복은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과 비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것과 비례합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흘리는 눈물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과 성공은 나눔, 섬김 그리고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세금 면제가 궁금하세요?



그레이스미션대학
제임스 구 교수

비영리 단체 설립 및 IRS 세금 면제 신청 관련 무료 공개강좌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 대학(GMU)의 엘에이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강좌는 특별히 엘에이 지역에

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의 일정은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레이스미션 대학에 대한 소개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714-525-0088(본교)

주소 :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175)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 ✓ 손 가락
- ✓ 발 가락
-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50
한달분

배째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채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땅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럼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리고, 끔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갑작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점,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염증통(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경, 쇠골 심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암면 신경마비, 증증,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초초,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땅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bow, 테니스 엘bow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불혹, 근종 수술 암해증
- 몸 전체 통증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아)

기도로 성취되는 성역(聖役)

사도행전 13:1-12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19-21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중략) …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들의 모체로 서둘러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후에 세워지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서둘러 전도인을 보내시고 그 입장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주변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 모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리에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소망의 체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교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과거에 헬라 문명권에서 살면서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바탕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 조건의 허망한 기대와 꿈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영성으로 바꿔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거리를 달라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기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 아래로 소망적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입니다.

흔히 교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 전달해도 당회나 제직회에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불순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피라미드형인 계통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세우어서 가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교인들 각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할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고 맙기시는 일이어야 자기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섭기는 보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고, 분석해 보신 결과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만하고 그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쓰실 만한 그릇으로의 자격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선교사로 세우라 하셨던 것입니다.

나이드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인 은사와 영력을 충만히 받아 파송되어야 죄악 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악수하여 보냈다고 했는데, 악수(오비디언)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악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중략) …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전 4:14-16) 한 것으로 보아 악수라는 것이 그저 손만 얹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채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악수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능력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수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가리어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 했고 영적인 선교 사업을 일거리로 주셨더니 다시 그들에게 영력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무장시켜 보내야겠다고 계속해서 금식기도를 했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악수하여 그들이 기도해서 얻어진 영력을 두 사람에게 가득 채워 영적으로 완전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며 부르짖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대로 선교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근간에 선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현지에서 선교 실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파송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는 교회적 명분만으로 내세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서 재정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재 선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갖춰진 은사와 영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지만 그들이 선교하는 실상은 전혀 아니라고 볼 때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해도 그곳에서는 선교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하나님에 예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말씀으로 더불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온갖 감동과 능력, 확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살아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살아왔던 박수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는 끝장나는 것과 같아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훼방함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에게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중략) …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행 13:10-11)” 했습니다. 이것은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며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는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이로써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총독은 그동안 무당 박수의 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쟁의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 기업 간의 경쟁, 생존경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방은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도록 극악무도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다행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이기는 믿음은 요한복음 16:28-33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중략) …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

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심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형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과 예수님의 잡혀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각각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끌려 다니며 매를 맞고 수모를 겪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힘없이 묶여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 기기 위하여 거쳐야 할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은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팔들을 해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 같이 높아지고,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훗날 영광의 주인공으로 되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 조건을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으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생각하고 항상 영적인 결정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악령의 세력을 밭불일 곳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인류 복음화가 확장되어 갈수록 마귀가 밭불일 곳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리와 성령으로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며,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영적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LA 미주 기독교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라디오 미주 기독교방송 FMR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과제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뉴욕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윤기 목사 은퇴

오는 7월 2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시애틀연합장로교회 4대 목사로 추임
해 13년 동안 담임해 온 장윤기 목사가
오는 7월 2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은
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애틀 연합장로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심우진 목사에게
이양한다.

기 목사는 38년 전 미국에 밭을 내디딘 후 포틀랜드, 알라스카,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사역했으며 2006년부터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어왔다. 올해 은퇴하는 장윤기 목사는 “시애틀

연합장로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전통을 바탕으로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왔다”며 “모든 교우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지키며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심우진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한바 있다.

24년 목회 마침표 찍고 은퇴



四四



1995년 8월 부임해 24년간 사역한 김준

에덴스한인장로교회에서 은퇴했다. 처음 이자 마지막 담임 목회였고, 부임할 당시 담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도 본 교회에서 받았다. 중간중간 고비가 많았고 말 못 할 가슴앓이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간구할 때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한결 같이 이끌어 주셨다.

은퇴를 앞두고 만난 김춘기 목사는 아쉬우면서도 훌가분한 얼굴이었다. 원래 지난 12일 유토판 제회장이었는데, 다행히 쪽면 ‘의외의 한 수’였다. 찢어지는 가난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시장 좌판 장사와 공장을 전전하며 재수, 삼수도 아닌 7전 8기로 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지만 여전히 공부에 대한 갈망과 아쉬움이 너무 커 만족이 안됐다고 한다. 모두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릴 때 고집스럽게 학업에 전념해 만 26에 대학에 입학한 그다.

그 고집 같은데 그 힘에서 오아오는 앙기

시단 12월 은퇴할 계획이었는데 당회의 요청으로 6개월 연장해, 후임 청빙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 선교지에서 안식월을 가졌다. 선교지에서 하도 걸어서 얼굴이 타고 살도 빠졌다고 한다. 한 교회에서 1개월 뺀 24년 동안 70에서 1년 뺀 69세까지 목회하고 은퇴하는 소감은 어떨까?

회할 생각은 없었어요. 교수를 하고 싶었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의 급한 부탁으로 임시직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에덴스한인교회에서 은퇴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웃음). 휴학계내고 처음 올 때 공부를 중단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적잖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어서 2년 정도 모히칸이나 모히카

있는데 와서 2년 정도 목회해보니 목회가 너무 재밌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커져서 학교 그만두는 건 오히려 쉬었습니다”라고 처음 에덴스에 발을 들여놓은 시간을 회고했다.

이어 “돌아보면 3번에 걸친 큰 위기가 있었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선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곳인가요’ 기 드한 때 읊단이 얹으셨고 다른 이들이 저 교사를 보면서는 마음으로 교회는 블라인드 신적으로 섭겨왔다. 그렇게 배출된 에덴스교회 ‘동문’이 헤븐리터치 미니스트리 순기철 장로를 비롯해 다수의 목회자와 장로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섭기는 수많은 든든한 신앙의 용사들이다. 이들이 몇 년 전, 교회가 모기지 문제로 예배당을 뺏길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연락해 왔고, 기도는 물론 크고 작은 현금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저력을 보여줬다.

– 김춘기 목사기



LA 치약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C대.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어기독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도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삶,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토) 오전 6:00(화-토)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나성교회
260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부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어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 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공공부 오후 8:00
금요성공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6:30(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EM) 오전 10:00 오전 6:30(화-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ian.org

주일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蹉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준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로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토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복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토요일아침 10:40(금) 오후 12:40 (교육관)
분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조준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6:30(토)
중국어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복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토요일아침 10:40(금) 오후 12:40 (교육관)
분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화-금)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시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30 한어찬양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n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화-금)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bkh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해마다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오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체플 Valley Chapel 김재봉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9: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l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6: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nah 19th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1911 F. (818) 549-1911 www.choonghyun.org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후원금 부정 사용하지 않았다” 주장



영화 '드롭박스'의 한 장면 ©필름포럼

그는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소원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한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다”며

“인간으로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면서도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락 목사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 자좌의 글’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보다, 우리 공동체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따져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며 “와중에 제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혹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부정한 것이었다면 해당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뒷 또한 제

것이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생명들과 미혼모부를 돋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생각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며 “의혹에 앞서, 함께 어려운 사역을 능히 해왔던 분이 이처럼 저를 정죄하기 위해 나선 것 자체가 제겐 무척 기습 아픈 일”이라고 했다.

‘자사고 취소’ 위기 ‘미션스쿨’ 안산동산고의 호소

[인터뷰] 조규철 교장 “교육청 평가 결과 납득 못해”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 그는 최근 나온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만난 조규철 교장은 다소 격앙돼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탓이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평가를 받은 학교는 안산동산고가 유일했다. 조 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답답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사실 평가 자체를 거부할까도 고민했었다. 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보고, ‘이건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 학교만이 아닌 다른 많은 학교들도 그렇게 봤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기준점에 미달하고 말았다.”

-왜 그런 의심을 했나?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니까.”

-평가지표의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5년 전 평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성평가 점수가 48점으로 5년 전보다 12점이나 늘었다. 정량평가에 비해 객관적 수치화가 어려운 만큼, 주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학교 만족도는 15점 만점에서 8점 만점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만족도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항목의

배점을 줄였다.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의 만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게다가 감사 등지적 사례에 최대 12점까지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감점은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경기도 교육청의 그것이 유독 높다. 우리 학교는 이번에 12점 전부 깎이고 말았다.

-만약 끝내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하면, 학교엔 어떤 변화가 생긴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알다시피, 안산동산고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미션스쿨’이다. 매주 수요일 모든 학생이 예배를 드린다. 또 정규 교과로 종교를 가르친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한다. 매일 수업 시작 전 경건회도 한다. 이 밖에 다양한 학생들의 기도

美 대규모 반(反)낙태 단체 재선 도전 트럼프 지지

전미생명권위원회 “생명권 수호하는 유일한 대선 후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反)낙태 단체가 2020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미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독립기념일인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낙태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록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원정 낙태를 장려하거나 모금을 해 온 단체에 세금을 면제해 준 멕시코시티 정책 등을 재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강제 낙태 정책과 연관된 유엔 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 바 있다.

위원회 캐롤 토비아스 대표는 성명서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녀는 “대통령직 수행 첫 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태아, 노인,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지지 성명은 7월 5~6일 사우스 캘리포니아 찰스頓에서 진행된 2019년 연례행사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태 관련 단체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5월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미국 내 ‘진보’ 와 ‘좌파’ 를 구별하는 3가지 요소는...”



데니스 프래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라디오 진행자이자 칼럼니스트인 데니스 프래거(Dennis Prager)는 미국 내 ‘진보’와 ‘좌파’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3가지 영역이 △인종 △이스라엘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래거는 지난달 28일 보수 기독교 단체인 신앙과 자유연합이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좌파들은 인종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미묘한 차별’로 규정하여 미국 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주의와 좌파의 핵심적인 차이점 3가지를 소개했다.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프래거는 참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진보주의자인지 좌파인지 물어보라. 그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인종에 대한 개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진보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인종의 통합이다. 이를 구별하는 것은 악으로 규정된다. 인종차별은 혐오적인 것이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날 좌파들은 지난 1950년대 남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종적인 구별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날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흑인들을 위한 졸업식을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흑인 전용 기숙사 선택권까지 마련해두었다”면서 “이러한 의식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전미학술학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에서 ‘신분리정책’이라고 부르는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흑인 기숙사를 반대한다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예로 “미묘한 차별 방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훈련지침서는 교수와 직원들에게 ‘오직 인류라는 한 인종만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미묘한 차별이라고 가르친다”고 전했다.

그는 “당신이 ‘인류라는 한 인종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곳에 우리 모두가 믿는 바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아담은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히스페닉 인종도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민족이나 종족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모두 그러하다”고 부연했다.

프래거가 진보주의자들과 좌파들이 구별된다고 언급한 또 다른 영역은 이스라엘이다. 그는 “진보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대한 지지를 말한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선봉에 있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영역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그는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자본주의에 친밀감을 보였다. 그러나 좌파들은 자본주의를 싫어했다.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항상 공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프래거는 마지막으로 “자유는 가장 큰 가치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싶은 본능보다 본능적으로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좌파들은 자유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고, 여러분이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와 자유 안에 있는 보수적인 신념을 믿지만, 좌파들은 설령 그것이 말뿐이라 해도 당신의 돌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음식을 제공하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좌파가 이기는 이유이다.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들을 호소한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했다.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이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승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인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온혜로교회

새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t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함과 같으리라(골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증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이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s.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예배 오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예배 오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월~토 오전 6: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1:00
주일3부 오후 7:30
주일4부 오후 9:30
주일5부 오후 11:00
주일6부 오후 7:30
주일7부 오후 9:30
주일8부 오후 11:00
주일9부 오후 7:30
주일10부 오후 9:30
주일11부 오후 11:00
주일12부 오후 7:30
주일13부 오후 9:30
주일14부 오후 11:00
주일15부 오후 7:30
주일16부 오후 9:30
주일17부 오후 11:00
주일18부 오후 7:30
주일19부 오후 9:30
주일20부 오후 11:00
주일21부 오후 7:30
주일22부 오후 9:30
주일23부 오후 11:00
주일24부 오후 7:30
주일25부 오후 9:30
주일26부 오후 11:00
주일27부 오후 7:30
주일28부 오후 9:30
주일29부 오후 11:00
주일30부 오후 7:30
주일31부 오후 9:30
주일32부 오후 11:00
주일33부 오후 7:30
주일34부 오후 9:30
주일35부 오후 11:00
주일36부 오후 7:30
주일37부 오후 9:30
주일38부 오후 11:00
주일39부 오후 7:30
주일40부 오후 9:30
주일41부 오후 11:00
주일42부 오후 7:30
주일43부 오후 9:30
주일44부 오후 11:00
주일45부 오후 7:30
주일46부 오후 9:30
주일47부 오후 11:00
주일48부 오후 7:30
주일49부 오후 9:30
주일50부 오후 11:00
주일51부 오후 7:30
주일52부 오후 9:30
주일53부 오후 11:00
주일54부 오후 7:30
주일55부 오후 9:30
주일56부 오후 11:00
주일57부 오후 7:30
주일58부 오후 9:30
주일59부 오후 11:00
주일60부 오후 7:30
주일61부 오후 9:30
주일62부 오후 11:00
주일63부 오후 7:30
주일64부 오후 9:30
주일65부 오후 11:00
주일66부 오후 7:30
주일67부 오후 9:30
주일68부 오후 11:00
주일69부 오후 7:30
주일70부 오후 9:30
주일71부 오후 11:00
주일72부 오후 7:30
주일73부 오후 9:30
주일74부 오후 11:00
주일75부 오후 7:30
주일76부 오후 9:30
주일77부 오후 11:00
주일78부 오후 7:30
주일79부 오후 9:30
주일80부 오후 11:00
주일81부 오후 7:30
주일82부 오후 9:30
주일83부 오후 11:00
주일84부 오후 7:30
주일85부 오후 9:30
주일86부 오후 11:00
주일87부 오후 7:30
주일88부 오후 9:30
주일89부 오후 11:00
주일90부 오후 7:30
주일91부 오후 9:3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호**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우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10:00(화~금)
유니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세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c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점심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9: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증보기도 오전 10:00(화)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ng, 청년 예배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190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r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한인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예배 오전 6:30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운동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봉사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c.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신문/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고신 김성복 총회장이 전하는 청와대 오찬 뒷이야기

정부와 청와대 먼저 국민통합 힘쓸 것 건의해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원쪽에 서 있는 사람이 김성복 총회장. ⓒ청와대

지난 3일 한국교회 교단장들의 청와대 오찬과 관련, 예장 고신 총회장 김성복 목사(연산중앙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예장 고신 김성복 총회장은 "오찬 막바지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제게도 한 마디 하라고 하더라"며 "처음에는 국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흥보하기 위해 부르는 것인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서두에 대통령께서 '여러 교단장들의 말을 듣기 위해 초청했다'는 언급에 공감한다는 말로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성복 총회장은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 교계가 힘써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먼저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남북통일과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 남 남갈등이 생기고 정부에 반감을 생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점에 신경을 쓰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내수경제 진작을 강조하시는 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덕분이다. 이것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관계 역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의 통일"이라고 전했다.

김 총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가 헌법에 나와 있지만, 평화도 곧이어 헌법에 나온다'면서 다소 평화지상주의적으로 설명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내수경제 진작 역시 바른 방향이라고 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평등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 NAP 독소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들은 선언적 의미로 이를 말하는 것인데, 마치 실행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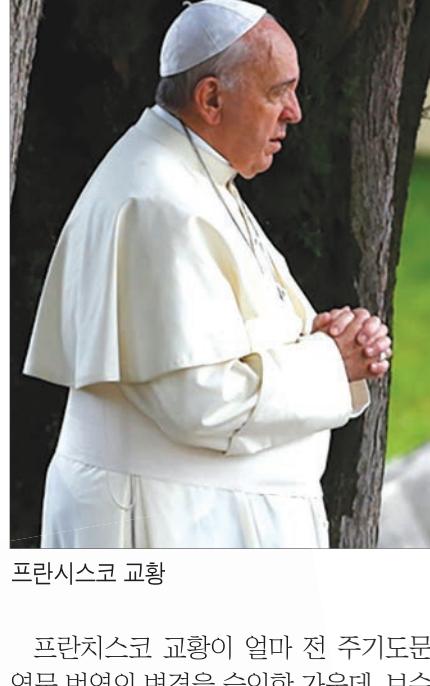
먼저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해 "서울 시에서 복지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 복지기관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복지를 시작한 곳이 한국 교회인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종교강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은 '미션스쿨 문제와 같다. 교회의 입장은 납득한다'며 수긍했다"고 보고했다.

성평등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 NAP 독소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들은 선언적 의미로 이를 말하는 것인데, 마치 실행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주기도문 바꾸지 말라" 교황 결정에 반대 청원

"교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 일으킬 것"



프란시스코 교황

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청원서에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신부님, 수녀님, 형제들로부터 주기도문을 배워왔다"면서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전통과 과거와의 이 귀한 연결고리를 깨뜨리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이 기도문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라이프사이트뉴스는 성경학자인 레토 네이 신부의 발언을 인용해 주기도문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 신부는 "주기도문은 고대 그리스 어로 기록된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를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문장은 마태복음 6장 13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과 연결돼 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문구를 전승의 오류나 잘못된 이해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루스 인스티튜트(Ruth Institute)의 제니퍼 로백 모스(Jennifer Roback Morse)는 성명에서 "신앙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청원은 매우 중요하다. 신앙은 가족들을 위한 이 단체의 사역을 포함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어권 신자들이 주기도문의 문구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교황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가 제안한 변경은 이미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얼마 전 주기도문 영문 번역의 변경을 승인한 가운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원래 번역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루스 인스티튜트(Ruth Institute)와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는 최근 주기도문의 영문 번역문의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시작했고, 20시간 동안 수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교황청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주기도문 영문 번역 중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을 'do not abandon us to temptation'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

성장(成長), 성숙(成熟), 그리고 원숙(圓熟)

성장(成長)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나무와 동물과 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원숙의 경지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성장과 성숙과 원숙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 안에 성장 본능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장할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막 태어났을 때는 누워 있다가 조금 성장하면 뒤집고, 나중에는 기어 다닙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무언가를 붙잡고 서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걷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말을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성장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대부분의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죽을 틈입니다. 어느 순간 꽃봉오리를 맺고, 그 꽃봉오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떨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앗으로 엄마의 자궁에 임태된 아이는 서서히 자랍니다. 생명체는 서서히 자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예수님은 키가 자람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람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려운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육체적, 지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추지만 정신적 성장, 인격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고 원숙해집니다.

성숙(成熟)이란 무르익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는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를 때 맛있고 멋있는 열매가 됩니다. 푸른 사과는 신상하지만 신맛이 납니다. 푸른 사과가 점점 무르익게 되면 붉은 빛을 띠고, 단맛을 냅니다.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여름의 작열하는 태양 별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폭풍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별, 폭풍우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넘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쓰실 인물들을 키우십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성장했지만 고난의 광야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성공을 통해 성장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실패와 상실과 갈등과 상처와 거절과 배신과 버림 받음과 질병을 통해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광야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광

야의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숙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숙(圓熟)이란 인격이나 지식이 깊고 원만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성숙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가 원숙입니다. 원숙은 둘 글 원(圓)과 익을 숙(熟)이란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원숙한 사람은 모가 나지 않고 둥근 사람 즉 원만하게 무르익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깊이 볼 줄 압니다. 영원의 안목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고난을 품을 줄 압니다. 원숙한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깊이에 조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숙한 사람은 만사에 때가 있음을 압니다. 밀물의 때가 있으며 썰물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썰물의 때에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줄 압니다. 소나비는 반드시 멈추는 때가 있으며, 깊은 밤이 지나면 희망찬 새벽이 밝아올 줄 압니다.

원숙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압니다. 원숙한 사람은 인생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합니다. 원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기에 침묵을 즐기며 경청하기를 좋아합니다. 원숙한 사람은 거듭 기본으로 돌아갈 줄 압니다. 거듭 본질을 추구합니다. 거듭 원천에 머물 줄 압니다.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원숙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알며(빌 4:11-12), 범사에 감사합니다(살전 5:18). 원숙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엡 6:18).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장을 넘어 성숙과 원숙함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벧후 3:18).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이지 않았지만 오로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경고의 말을 믿고 산을 향해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목요일, 20년 만에 진도 6이 넘는 6.4의 지진이 일어나서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금요일 새벽에는 5.4, 저녁예배를 드릴 때는 더 큰 지진, 진도 7.1의 강진이 일어나고, CNN은 여진이 1400 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지진에 대한 성경말씀을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마24:7)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6,13)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는 현실이 재난의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한 내용이라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더욱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경고 바로 다음 마태복음25장에서 미련한 자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고,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를 잘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와 같다고 하시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마25:13)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준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배드리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리가 아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무서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깨어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시는 말씀

이모세 (월드타운교회 담임), 이양임의 아들

이대균 (David Lee)군과

김광국, 김미숙 의 딸 김민디 (Mindy Kim)양이 주님안에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저희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Invitation

David & Mindy

7 · 20 · 2019

주례 : Pastor Jason Cha

일시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동부장로교회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 예식 후 용수산에서 피로연이 있습니다.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하늘문 교회 창립예배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 !



담임 한기형 목사
(현, 남가주 교회협의회 회장)

일시 : 2019년 7월 21일(주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장소 : 하늘문 교회 예배실

1830 W. Olympic Blvd. #219,
L.A, CA 90006 (올림픽과 바니브래아)

연락처 : T.(213)505-0191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마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앤솔브,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령,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 1,000원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한인타운 한의원

급매 크기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무를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구조 및 연락처 담당합니다.

FREE ESTIMATE • TOWING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Dietary Supplement

대마함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신이 내린 향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 출산, 낙태, 치료와 노화방지

에 도움이 되며 특히 G1S는 미국암협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종목성이 있으며

한국상을 유발하는 THC성이 없습니다.

※ 민성동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행복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험프씨드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시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 암 전이를 예방해주시며

혈관을 튼



“예수님 사랑 삶으로 전하면, 아이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다”

**컨설팅? 교회 안 오는 이유, 아이들에 물으라
지루하면 안 돼, 분반활동도 동아리활동 바꿔
시험기간 간지 배달, 삼겹살 파티, 3분 심방 등
진리 변할 수 없지만,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치유하는교회(담임 김의식 목사) 주최 제7회 전국 목사·사모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가 지난달 24일 서울 화곡동 교회 글로리아채플에서 개최됐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이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김의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장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며 “부족한 종이 35년 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외쳐왔듯 ‘오늘의 어린이(학생, 청년) 복음하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강사님들의 어린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영성과 복음의 열정,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열망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장래의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영적 부흥이 이 땅에 뜨겁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의 강연이 관심을 모았다. ‘다음 세대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제로 박동찬 목사는 ‘성육신 목회’를 강조했다. 박 목

사가 제시한 성공적인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4가지 요소를 정리하면, ①재미 ②유익 ③분명한 동기 부여 ④목회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이다.

그는 “교회학교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우리는 교회를 지루하게 만들어서, 주님 품에 오려는 아이들을 떠밀어내고 있진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동찬 목사는 “교회에 아이들이 왜 오지 않는지 알기 위해 컨설팅이나 세미나를 다닐 필요가 없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다”며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해아리지 못한 채,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서 ‘왜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 가운데 나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 입시 등으로 지친 아이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다.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주입식과 강압적으로 사역하다 보니 아이들은 계속 교회에서 수동적이 되고, 대학교에 가서 떠날 생각만 하는 것”이라며 일산광림교회에서 실시했던 여려 사역들을 소개했다.

먼저 청소년들의 예배 후 각 ‘반’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은 ‘동아리’로 바꿨다. 그는 “유기견 동아리도 있고, 컴퓨터 게임 동아리도 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1시간을 보장해 주니 교회에 오고 싶겠는가 오기 싫겠는가”라며 “힐링 동아리는 교회 내 원하는 어른을 교사로 영입해 매달 온천을 다녀오더라”고 전했다.

백미는 ‘바둑 동아리’다. 그는 “바둑 동아리는 사람이 줄어들어, 만든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그 아이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라.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모두 놀랐다”며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바둑 두는 친구 2명을 데려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고 말했다.

박동찬 목사는 “교수님들과 연구활동도 하다 보니, 무신론자인 아버지도 자녀에게 ‘교회에 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가 유익해 보이는 것이다.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떳떳하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강조했다.

시험기간에 결석률이 40% 가까

이 되면서 ‘간지 배달’을 시작했다. ‘간식 지정 배달’이라는 뜻으로, 주 중 50여곳의 학교를 다니면서 간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랬더니 시험기간에도 주일예배에 아무도 빠지지 않고 2백명 이상 출석했다고 한다. 하루를 정해 아무 때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실컷 먹고 가도록 하는 ‘삼겹살 파티’도 있다. 교역자들이 학교 앞에 찾아가서 딱 3분만 만나주는 ‘3분 심방’도 진행했다.

그는 “사탕 하나 건네면서 딱 3분만 대화하다 쿨하게 떠난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람이 희한한 게 불잡고 싶어진다”며 “자기 한 사람을 위해 학교까지 찾아와 줬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에서 3박 4일 비전트립을 가면, 제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한 채 따라간다. 2-3년 목회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출발 전에 열심히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기만 해도, 절반쯤 거리가 줄어든 것을 느낀다. 기도도 좋지만, 가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감을 느낀다. 그렇게 함께하고 돌아오면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라”고

털어놓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창업셀’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연 작은 카페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수익은 7대 2대 1로, 참여한 청년들이 7, 구제나 선교비로 2, 다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적립금으로 1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실업 문제는 정치인과 경제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이를 해결해 준다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동찬 목사는 “이게 무슨 목회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육신적 목회 대신, 매일 세상을 향해 정죄만 하는 바리새인적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목사는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며 “더불어 교회는 사회에서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적 지도자들도 양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비스 할까? • 내가 풍차가 뭘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들어주시면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칠리 정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YUNDAI

모집과정

학사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석사
기독교육학석사

박사과정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 (III)

감리교 목사였던 이용도(1901-1933)의 부흥운동은 장로교회 목사들이 길선주, 김익두의 사경회와는 달리 독특한 방향에서 출발하여 결국 이단 정죄로 끝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용도 목사의 부흥은 이 목사 개인의 영적 체험에 근거한 신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이용도는 1901년 4월 황해도 금천(金川)군 서천면에서 빙농 이덕흥(李德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술고래였지만, 전도부인이었던 신앙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우며 자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약한 체질에 정이 많은 아이였다. 개성에 있는 한영서원(송도고보의 전신)에 다닐 때 3·1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해 2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 후 협성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도중 각혈을 하거나 폐병 3기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친구 이환신(李桓信)의 고향 평남 강동(江東)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의 일생을 결정짓는 특이한 경험을 한다. 신학생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 곳 교회에서 그에게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는 청을 하였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 섰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서 있는 그를 본 성도들도 따라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온통 눈

물바다를 이룰 뿐이었다. 이튿날의 집회도 역시 눈물의 흥수를 이루는 집회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눈물의 집회를 통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용도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직접 가슴에 와 닿는 체험을 하였다. 이 집회 동안 경험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체험은 그의 일생을 두고 한 번도 잊어 본 일이 없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몸부림치다 간 한 시대 신비주의의 전형이었다.

이 체험을 한 후에 그는 건강이 회복되어 신학교에 복학하고 이어 졸업을 하였다. 그는 강원도 통천(通川)에 목회지를 지정받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그의 첫 열정이 식은 것을 깨닫고 산상기도와 금식기도를 목숨을 걸고 시도하여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 버리소서. 그리고 예수에게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 주소서. 예수에게 미쳐야 하겠나이다.”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였다. 예수에게 미쳐야겠다는 그의 고백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일(合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성애(性愛)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것이 그의 신비주의의 핵이었다.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기록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끌리시고, 나는 주님에게 끌리어,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一化).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키운 바되고, 주는 나의 신앙에 삼키운 바되어, 결국 나는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는 나의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었나이다. 오 나의 눈아, 주를 바라보자. 일심(一心)으로 주만 바라보자, 잠시라도 딴 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세. 나의 시선에 잡힌 바 주님은 나의 속에 안재(安在)하시리라. 오 나의 눈아,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자, 주께서 피하시라, 피치 못하게 다만 그만 바라보자.”

주님과의 완전한 합일, 이것이 그가 이끌어 낸 신앙의 결론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루는 신비사상의 중심이었다. 이용도의 사경회는 가는 곳마다 열화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사경회는 비단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교파

를 초월하여 장로교에서도 그를 불러 사경회를 하였다. 평양 장로교회의 본산인 장대현교회에서도 사경회를 인도하여 큰 은혜의 집회가 되었고, 사경회 후 평양의 온 교회들이 기도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 교회의 제1차 각성운동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기성교회 목사들의 질투심이 작용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경회를 인도하는 이 목사 자신이 공격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먼저 그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곳은 묘하게도 그의 출신지인 황해도였다. 1931년 8월 장로회 황해노회는 이용도가 재령교회를 훼방하고 여신도들과 서신거래를 자주 하며, 불을 끄고 기도하고, 교역자들을 공격하며, 「성서조선」을 선전하는 무교회주의자이며, 교회를 훼란케 하는 자라는 이유로 금족령을 내렸다. 평양에서 그가 인도했던 사경회가 끝난 후 몇몇 집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문밖교회에서 매주 1회씩 기도회로 모였는데, 누가 불였는지 이 모임에 ‘기도단’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평양노회 역시 이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이즈음 한국 교회는 황국주(黃國柱)의 예수 자처사건, 최태용(崔泰瑋)의 무교회주의로 훼란에 차 있던 때여서, 기도단의 움직임에 대해

교회들이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평양노회는 즉시 남궁혁(南宮赫), 채필근(蔡弼近) 목사 등 5인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한 후 보고하게 하였는데, 1932년 4월에 모인 노회에서 아래의 조항들을 결의 하였다.

1. 각 교회가 통상예배, 사경회, 수양회 시에 강도와 교수는 가급적 장로회 인허 받은 자로 할 것. 2. 기도는 은밀, 조용히 할 것. 3. 안수 받지 못한 자가 병자에게 암수하지 말 것. 4. 상회(上會)가 인허치 아니한 단체는 용납하지 말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도단과 이용도의 장로교 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노회장 남궁혁은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영적 운동은 일종의 신비주의로서 종교 신앙의 주체적 체험 방면을 중시하는 것이므로...심지어 성서 밖의 별(別) 계시와 새 주의를 분연히 선전”하는 무리들이라고 이용도와 그 추종자들을 경계하였다.

마침내 장로교 총회는 1932년 제22차 회의에서 이용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장로교 내에 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감리교회에서도 사문(查問)위원회를 소집하여 그의 활동을 조사한 후, 연회에서 그에게 휴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이용도의 사경회는 그 종말을 맞게 되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갈 때 얻는 결과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9회〉

2019 시카고 선교캠프를 다녀와서(1)

지난 한 주간(7월 1일-6일)은

시카고 휴튼 칼리지에서의 은혜

와 승리의 한 주간이었다.

수십 명의 청년 스텝들은 며칠

일찍 도착하여 근처의 미국 교회

를 거쳐서 삼아 먼저 기도회와 준

비를 시작했다. 필자는 1일에 도

착하자마자 한 청년의 간증을 들

었다. “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야기자 선교캠프 하루 전날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는 3만 명 이상 예상되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계획되었다고 했다. 청년 스텝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했단다. “하나님 저들은 저 죄악 된 모임을 갖는데도 수만 명이 쉽게 모이는 데 우리는 일 년 내내 기도하며 그토록 동원에 힘썼는데도 선교캠프 등록이 2천 명 밖에 안됩니다.” 라며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런데 전 날 맑은 하늘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다운타운 동성애 집회가 돌연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선교캠프는 승리의 소식을 접하며 시작되었다.

첫날 강사로 선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인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 2년 6개월의 간증과 그의 선교비전은 그 자리에 모인 다민족 참가자들의 가슴에 선교 열정의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강의마다 세계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가슴 벅찬 감동과 전율을 넘치게 안겨 주었다.

이번 선교 캠프는 다민족들의 참가가 많아졌다. 전체적으로 약 3분의 1이 다민족들이었는데 YG 세대(청년)들만 본다면 거의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인터콥 선교회의 미국 전체 재단 이사장은 미국인 사업가 Timothy Bar-



이 상 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ber이다. 그를 중심으로 미국 안에 있는 다민족 리더십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이 다민족 청년 리더십들이 SM(1년 이상 대학생 선교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교부흥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필자는 인터콥 선교회의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런 청년들의 영적 네트워크와 훈련을 체계 있게 받아 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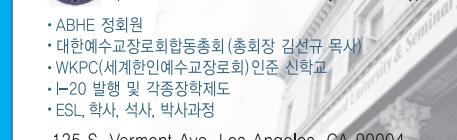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너무도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인터콥 선교회의 캐치 프레이즈는 “Frontier Pioneer 정신”이다 말 그대로 최전방 개척이다. 필자는 그리스도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열정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 청년들이 그렇다. 이 청년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 보고는 참으로 성령 행전 그 자체였다.

작년 미국 선교캠프의 소식을 접한 호주 중심의 오세아니아 지역 청년들이 호주에서의 청년 선교캠프 개최를 희망했다. 그 소식을 듣고 미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캠프 스텝을 지원하였다. 그렇게 구성된 다민족 청년 스텝들이 호주로 건너가 교회들을 방문하며 동원하고 개최한 결과 훌륭한 선교캠프를 이루어 냈

다. 그 캠프 중에 유럽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은 또 유럽 선교 캠프의 비전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청년들 중 소수의 자원자들이 유럽 영국, 독일등의 교회들을 들며 동원하여 300명 이상의 청년 선교캠프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비전스쿨을 통해 호주와 유럽 교회의 청년들이 세계선교의 물꼬를 트는 F.O(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주의 다민족 청년들을 점점 더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계신다.

유럽을 끝낸 청년들은 쿠바의 개방과 동시에 쿠바로 가서 비전스쿨을 열고 그들까지도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하면서 남미의 6개국을 방문하며 교회를 깨워 현재 16개의 비전스쿨을 열고 남미 교회까지도 세계선교의 파트너 교회로 세워 가고 있다.(계속)

201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구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대학, 목회학대학(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호숙 박사 T(626)227-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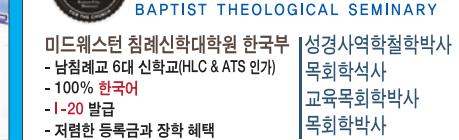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 | 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드웨스턴 칠레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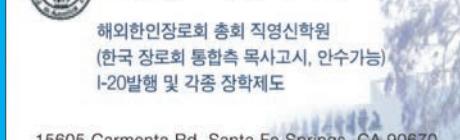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www.mbs.edu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교사,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개척주의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0081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 TRACS 정회원 인증

•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Ministr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대 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수) 접수시 \$5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 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1회▶7월 30일까지 \$500, 2회▶8월 30일까지 \$500, 3회▶출발 7일전 \$1,000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 행	상 세 일 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둠, 주기도문 교회, 베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훈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달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툰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화,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호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랴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둘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남가주벧엘교회 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 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전 1:12)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벧엘교회는
아래와 같이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오병익 담임목사 외 임직자 일동 -

■ 일시 : 7월 21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남가주벧엘교회 예배당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 문의 : T.(562)524-2037



김원희 권사



박효강 권사



제니 리 권사



제니퍼 리 권사



최미영 권사



수잔 송 명예권사



김시열 안수집사



김요한 안수집사



김은경 안수집사



김지현 안수집사



스티브 홍 안수집사

